

[부록 1]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좌파정치*

브루노 라투르

이 글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과학사회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서 이른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제창하여 과학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라투르가, 최근에 독일사회민주당의 요청으로 쓴 글로서 그의 글 중에서는 드물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과학기술 민주화의 문제의식을 탈냉전 이후에 요구되는 새로운 좌파정치의 지평 전반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을 여기 [부록]에 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단지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부문운동이 아니라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 하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정치적 입장이 이 글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여기에 밝혀두는 바이다.

<옮긴이>

*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이 주최한 "과학기술 및 정치에서의 혁신"에 관한 회의(독일 쾰른)에서 발표한 글인데, 1998년 5월에 작성한 것이다. 원 제목은 "사물은 사람이다: 좌파(유럽) 정당을 위한 철학적 강령". 김환석 옮김.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프랑스 파리광산 대학교 혁신사회학센터 교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우리 모두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랜 적(敵)이 없어짐으로써, 정치적 성찰 역시도 '평화의 이익'을 누리고 냉전시기에 편리한 무기였던 많은 어리석은 주장들은 이제 중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보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와 우파가 서로에게 던져왔던 이 모든 주장에 담긴 정치철학들의 내적 자질을 우리가 좀더 차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무기의 군비축소에 이어서 곧바로 주장의 군비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칼이 보습이 될 것이다")고 믿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유럽의 좌파지도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다 평화적인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폭넓은 다양성 대신, 그 지도자들 모두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전쟁중에 있는 것처럼 과거와 다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화' '시장의 자유' '탈규제' '유연성' '정보기술' 등,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외치며 여기에 새로운 표어로서 '혁신'을 덧붙이길 잊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좌파정당들이 한 것이라고는 군비축소가 전부인 것 같다. 좌파정당들은 시대의 변화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쟁점과 상황을 자신들의 용어로 그려낼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좌파정당의 담론은 그 적의 담론을 조금 가감한 것과 진배없다. 이들 모두는 누가 근대화를 더 잘 근대화하느냐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이들의 유권자들이 우파와 좌파를 분간해 내기 힘들고, 따라서 그냥 좀더 젊어 보이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아래에서 나는 평화의 이익을 진정으로 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과거 투쟁이 지녔던 가정들 일부를 재검토하고, 좌파와 우파의 (금세기의 냉전과정 속에서

고안되어 지금은 소용없어진 차이로부터 끌어낸 것이 아닌) 새로운 차이를 재발명하기 위한 매우 짧은 열 가지 항목의 강령을 제안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매우 철학적인 강령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각 주장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스케치한 수준이다...

항목 1: 우리는 근대화를 근대화해야 하는가?

나는 좌파정당이 마치 근대화의 심화가 아직도 우리 시대의 목표인 것처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옹호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좌파는 과거의 웅장한 원근화법 속에서 우리를 해방된 미래로 이끌어주는 앞으로의 전진, '진보'의 위대한 설화, 고대의 족쇄에서 풀려난 시간의 화살 등과 결부되어 생각되어 왔다.

문제는 시대가 크게 변하여 시대의 변화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앞으로의 전진이 미래가 과거보다 덜 얽히고 덜 복잡하고 덜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틀린 생각이다. 오직 우파만이 과거에 비해 미래에는 규제가 적고 장애물이 줄며 자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진보'의 설화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생태학에서부터 유전학까지 혹은 윤리에서부터 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토픽에 초점을 맞추건 미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훨씬 더 얽힌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직 시간의 화살은 존재하고 그건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더 이상 그것은 노예제로부터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시간의 화살은 얽힘으로부터 더 얽힘으로 가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좌파정당은 철학자와 언론인과 사상가들이 탈근대성

(postmodernity),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 초근대성(hypermodernity) 같은 모호하고 다양한 용어로 포착한 것을 정치적으로 파악을 해내야 한다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용어가 무엇으로 쓰든,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무언가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좌파정당들은 이를 무시하고서, 마치 논쟁의 핵심이 누가 더 근대화를 빠르게 근대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인 양 단지 더 젊은 지도자들을 내세워 '진보'의 위대한 설화에 서 우파와 싸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우리는 근대화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이제 좌파정당은 시간이 흐르는 방식 그리고 미래가 자유와 억압의 면에서 제공할 것에 관하여, 우파와는 다른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 낼 시점이 되었다. 한 번 더 도발적으로 위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해방의 추구가 더 이상 좌파의 슬로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항목 2: 유럽의 특별한 책임

유럽은 근대성을 발명해 냈다. 따라서 유럽은 근대성을 해체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나는 유럽의 좌파정당이 미국의 관심사를 그 자신의 그리고 유일한 지평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너무 강력하고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근대성의 재형성이라는 유럽의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조업자는 그 제품을 '리콜'을 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문제를 고치고 제품을 개선할 새로운 도구를 장착시켜 주기도 한다. 나는 유럽인들이 근대성을 '리콜'해서 그것을 다른 기획으로, 특히 세계를 보편화하는 거대한 노고에 다시 착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아래 '항목 5

참조)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임무를 미국이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끝없이 이른바 '진보'의 길을 가고 있으며 과거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시하면서, 근대성이 아직도 오늘날의 목표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유럽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단적으로 결정할 이유가 생긴 것 같다. 즉 그것은 근대화와 보편화의 엄청난 기획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며, 금세기 말인 지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 근대성을 해체하고 유럽인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근원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구화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 이때야말로 미국의 미래와 과거가 유럽의 미래와 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때이다. 좌파정당은 미국의 미래와 유럽의 미래 간의 (냉전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상 오직 좌파만이 유럽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왜냐하면 우파—적어도 신자유주의 우파—는 보편주의적 미래만을 꿈꿀 수 있는데, 이는 곧 실제로는 미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항목 3: 계승에서 공존으로

나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공간에 대한 집착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히 좌파정당에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좌파정당은 그 많은 에너지와 주장을 혁명의 개념에 쏟아부었고 개혁은 혁명을 외치지 못하는 실망스럽고 비

접한 방식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만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들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건 한갓 우스꽝스러운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교체되고 또 교체당하는 역사적 시대들의 비가역적 계승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런 '역사의 종말'은 근대화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심원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일 시간이 '계승의 연쇄'로 정의되고 공간이 '동시성의 연쇄'(혹은 한 순간에 함께 공존하는 것들)로 정의된다면, 현재 우리는 시간의 시대—계승과 혁명들—를 떠나 매우 다른 시간/공간, 다시 말해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좌파정당의 핵심 문제는 더 이상 '혁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심지어 급진적 혁명을 완만한 개혁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질적인 형태의 사람들·시간들·문화들·시대들·실체들 사이에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파가 할 수 없는 일인데—심지어 그들이 반동적이라고 주장할 때조차—왜냐하면 우파는 공존의 새로운 의무를 흡수할 능력이 없이 혁명시대(기술적·경제적 격변들)의 거대서사로 끝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지속적 혁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이들 새로운 '평등파(Levellers)'에 대항하여, '반동적'이 되는 것이 이제 좌파에 주어진 의무인 것 같다. "혁명시대의 때는 끝났다"고 좌파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공허해진 혁명의 꿈 대신에 좌파정당은 전혀 예기치 못한(그리고 진정 '혁명적인!') 임무에 당면할 텐데, 이것은 어떤 혁명도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는 지구 위에서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

드는 일이다.

냉전기 동안 좌파가 우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차이는 혁명을 '옹호'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양자의 새로운 차이는 과거를 영원히 제거하는 급진적 변화에 대한—현재 신자유주의 우파와 종종 연관되는—집착과, 아무도 영원히 단순화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이질적 실체들의 공존(즉 공간의 창조)을 향한 새로운 의무 사이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새로운 구분은 또한 새로운 좌파가 자신을 구(舊) 극좌파와 영원히 구별하는 분명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 구 극좌파는 항상 정치행위의 후미-전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언제나 총체적 변혁이라는 붉은 깃발로 선동을 하곤 하였다. 이제 좌파의 왼쪽에 있는 다른 좌파란 더 이상 없다. 이른바 '극좌파'란 단지 반동적 혁명가의 다른 유형일 뿐이다.

항목 4: 과학적 논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나에게 좌파정당이란 우파의 신속한 지름길인 아름다운 단순화에 대항하여 복잡화의 편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대화의 시대였던 가까운 과거에는 단순화가 시대의 유행이었다. 사물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지니지 않고 낱은 사물을 영원히 대체하면서 생산될 수 있었다. 더 많은 과학과 더 많은 기술이 투입되면 필수룩 논란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유일한 최선의 방법, 유일의 경제적 최적화,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해결책,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놀이마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결과들(위험들, 의도하지 않은 효

과들)은 사물의 정의 자체로 다시 피드백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수단
의 반역(revolt of the means)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좌파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은, 과학과 기술이 사물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단순화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학과 기술은
정치적 화염을 꺼주기는커녕 정치적·윤리적·생태적 논쟁들에 기
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울리히 벡(Ulrich Beck)
같은 사람이 '위험사회'를 논하는 이유이다. '위험사회'는 '악
(bads)'의 분배가 '선(goods)'의 분배를 대체할 것이라는 파국론적
사회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이 원래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불확실
성을 더 엮는 역할을 한다는, 이제 우리 모두가 신문에서 읽을 수 있
는 작고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좌파의 쇠신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냐하면 좌파는 스스로를 너무 과학과 기술과 결부시켜 왔기 때문이
다. 좌파는 과학으로부터 보다 큰 확실성을 기대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과학기술적 논쟁 위에서 정치적으로
변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좌파정당이 우파와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지점 가
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면이다. 우파는 더 많은 과학주의, 기술의 무
조건적 가속화, 더 적은 논쟁, 더 적은 규제라는 전통적인 — 그리
고 이제는 극히 반동적인 — 호소를 계속하게 내버려두자.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슬로건은 "(국민의) 대표
없이 과세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좌파는 이 진보적인 호소를 부활
시킬 수 있는데, 그건 "대표 없이 혁신은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다.
과학이 사회질서의 구성요소들을 단순화하고 정치를 우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좌파는 과학과 기술을 납치하

여 정당한 과정을 비껴가려는 단순화론자들에게 삶이 비참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항목 5: 지구화는 이 시대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는 재확립된 좌파정당이 오늘날 새로운 표어가 된 지구화
(globalization)라는 용어에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문화들의 소멸로 특징지어지
는 새로운 지구화된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즉 무엇이 국지적인 것이고 무엇이
지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를 뒤엎는 많은 새로운 문화들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우리들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소수의 특정 과학의 어
떤 내용에 기초해서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관념을 발명해 냈
고, 이와 비교하여 '국지적(local)'이란 개념은 이국적이고 이상하고
오래 되었고 곧 소멸의 길로 접어들 어떤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지
구적 자연의 통일성이 국지적 문화들의 다양성과 대비되었다. 이것
이 우리 유럽인들이 지구를 근대화하고자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자연(단수형)과 문화들(복수형) 사이의 대조를 나타냈던
이 두 용어들 모두가 현재 한꺼번에 수정이 되고 있는 중이다. 과학
적 실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보편화의 유형이 타자를 단지
국지적으로 만들 수 있던 능력을 상실했으며, 예전의 '국지인'들이
전세계에 걸쳐 특히 새로운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차이를 알리
고 자신들을 존중받게 만들 새로운 방식들을 발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차이들의 지구화"(아파두라이Appadurai의 표현)는
근대화의 해체로부터 우려스럽게 예상되던 불가공약적인 관점들의

파국적 분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이렇게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의 연관이 비유럽인들에 의해 완전히 전복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만일 좌파가 지구화와 '신세계질서'라는 반복적 주문을 마침내 품에 안는다면 이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는 중대한 정치적 실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우파 자체가 세계 곳곳에서 이전 쓸모없어진, 보편성과 국지성의 구분에 따라서 분열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즉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우파가 지구화(사실상 이것은 미국화)를 환영하고 있는 데 비해, 또 한편에서는 이들에 대응하여 두번째 우파가 문화들의 새로운 형성에 힘입어 토양과 혈액, 심지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족 국지성들을 발명하고 있다.

만일 상반된 이 두 우파들로부터 좌파를 구분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국지성과 지구성의 새로운 결합을 모색하는 일이다. 더욱이 이것은 과거에 근대화와 보편성이 과연 무얼 뜻했는지를 유럽이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지난 극도의 다양성과 유럽 좌파가 연루된 다양한 모순적 보편성들의 얽힘을 감안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유럽의 좌파만이 이런 임무를 시급하게 여길 것이다. 이 면에서 새로운 유럽은 미국을 전세계로 단지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유형의 미래를 보여준다(앞의 '항목 2').

이상의 다섯 가지 항목들을 합친 것은 어떤 틀이라기보다는 내 입을 나타내는 작은 강령의 무대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좀더 잘 요약하기란 매우 어렵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좌파가 우파로부터 자신을 구분할 많은 기회들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사건들에 새롭게 주의를 돌

리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앞의 항목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때때로 무엇이 현시대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내 생각에 좌파는, 냉전의 깨진 과거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후 우연히 자신에게 떨어진 전혀 새로운 유산을, 단지 그것이 자신이 조상에게 기대한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어리석게 거부하는 실망한 상속자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때때로 우리는 조상이 바뀌거나 혹은 유전학에서 종종 발생하듯이 조상과는 매우 다른 형질을 상속받은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역사적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다음에 열거할 다섯 항목은 좀더 실질적인 것이지만, 염려스럽게도 요약하기가 더 쉬운 것 같지는 않다.

항목 6: 하나의 생명력 있는 정치질서인가 아니면 두 개의 생명력 없는 정치질서인가?

좌파는 항상 '과학'(대문자 S의 Science로서 흔히 가정되는 유일의 절대적 과학을 의미함—옮긴이)과는, 즉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학들의 실천과는 무관하며 정치과정을 절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지는 그런 인식론하고는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해 왔다. 좌파는 그의 적들이 발명한 이런 '과학'의 정의를 비판하고 해체하기보다는, 100여 년 동안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납치하려고 시도해 왔다. 따라서 좌파는 사회와 경제의 확실한 법칙 혹은 심지어 역사의 법칙이라는 이 신화적인 과학의 힘을 아무 거리낌없이 수용해 왔던 것이다.

좌파는 자신의 진짜 혈통에는 적합치 않은 이런 힘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재앙에 책임이 있는 가공스러운 피물을 낳았는데, 그게 이른바 '과학적 정치'라는 놈이다. 과학과 정치의 이 치명적인 결합이 흘러간 피는 오늘날 좌파의 많은 사람들 손에 아직도 묻어 있다. 사회의 과학과 역사의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정치과정을 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관념이 저지른 그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신들은 충분한 '상징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궁극적인 과학적 정치를 산출해 낼 권리를 얻었다고 믿는 사회과학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과학의 실천에 있어 상황이 크게 변하여(앞의 '항목 4'), 정당한 과정을 우회하는 '과학'이라는 관념은 진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이 정치과정을 절약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쪽은 이제 우파이다. 왜냐하면 우파는 하나의 과학, 즉 경제학이 주장하는 법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경제학은 소수의 다른 과학들이 낳은 확실한 결과들 — 예컨대 약간의 신다윈주의, 약간의 '우생 유전학(eugenetics)', 인지과학의 일부 결과들 — 만 추가된다면, (생명과 두뇌를 다루는 진정한 과학분야들이 전혀 다른 상들을 제 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호소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즉 계몽주의 이래 절대적 '과학'에 호소해 온 것은 주로 좌파였으나 이제 그것이 우파가 된 상황 — 옮긴이)은, 좌파에게 우파와 구분되는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바야흐로 당신은 두 개의 방 — 하나는 정치를 행하지 않고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어지는 대문자 S의 '과학',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을 내리지만 열정과 이해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문자 P의 '정치' — 을 가진 정치질서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당신은 우리 모두 — 즉 사물(Ding)과 사람(Thing)과 — 를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치로서 명시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정당한 정치과정을 구축하기를 원하는가? 두 개의 방을 지닌 첫번째 정치질서는 생명력이 있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재앙들을 초래해 온 당사자이다. 한 개의 방을 지닌 두번째 정치질서는 새롭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몸의 정치(Body Politic)'를 상상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실험해 봐야 할 성격의 것이다.

대문자 S '과학'과의 결부가 낳은 많은 재난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법칙이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범죄들 때문에, 좌파는 자신을 우파와 재구분하여 보다 새롭게 존재하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을 정치질서의 생산을 우회하는 것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기술을 정당한 정치과정에 따르게 만들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책임은 스스로 '녹색파(the Greens)'라 칭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데 중요하다. 녹색파 사람들은 생태학의 이름으로 악몽 같은 과학적 정치의 또 다른 화신을 재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치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과학' 덕분에 사물의 위대한 사슬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지를 자신들은 안다고 감히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 표어가 좌파와 녹색파를 구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좌파는 사람(Thing)/사물(Ding)의 하나의 정치과정 아래 사는 데 반해, 녹색파는 아직도 해묵은 근대주의적 이분법 '몸의 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녹색파는 정치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자연을 구하려고 하는 데 반해, 좌파는 정치를 이런 의미의 자연으로부터 구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파정당은 녹색파가 그렇게 부지런히 제기해 온 모든 쟁점들을 자신의 과제로 삼되, 녹색정치를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든 이중적 속박(자연 대 정치)은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 7: 집단적 실험

만일 좌파가 자신과 두 개의 우파—지구화주의 우파와 종족주의자 우파—사이에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그리고 자연과 사회 간의 이분법을 따르는 녹색파와도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좌파는 '과학'과 '연구(research)'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좌파는 자신의 과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학과 공학 그리고 이것들의 발전과 혁신과 자신을 강하게 결부시켜야 하지만, 더 이상 이것들을 정치를 절약하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좌파는 '과학'—그리고 그것의 재앙적 결과들—과 결부되어 왔지만, '연구'와는 아직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구 온난화, 유전공학의 영향, 종의 보존, 인구증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집단적 실험의 구성원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최근까지는 극소수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과학정책(science policy)'을 스스로 실천해 봐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방대한 범위의 과학기술적 논쟁들에 걸쳐서 과학정책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생산자와 대중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정치를 재편성해야 한다. '계몽'의 편에서 투쟁했던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좌파가 산업화·근대화·지구화 등을 위한 소명을 무비판적으로 품에 안을 필요는 없다. 좌파가 몽매주의(obscurantism)와 투쟁하고자 한다면 아

직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계몽되어야 할 몽매성이 모양을 바꾸었다. 다름아니라 그것은 수십억의 사람과 동물과 사물이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의정서도, 피드백 기회도, 사후보고도, 기록보관소도, 모니터링도, 정당한 정치과정도 없는, 즉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내고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무 질차도 없는 집단적 실험이라는 관념이다.

좌파는 '과학'과의 밀착에서 '연구'와의 밀착으로 이동함으로써, 대문자 S '과학'이 자신의 기획에 주었던 이차적 이점—확실한 법칙에 호소해서 정당한 정치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에서 스스로 젖을 떼야 할 것이다. 만일 좌파가 자신을 얼마나 많은 실체들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지름길이 없는 집단적 실험을 모니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과학'에 호소해서 정당한 정치과정을 우회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항목 8: 경제적 계산의 집단적 전유

앞에서 주장한, 과학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는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를 의미한다. 사실 좌파정치의 역사가 150년이나 흘렀는데도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 아직 제대로 검토되거나 비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좌파에서부터 지난날의 극좌파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폴라니(Karl Polanyi)라는 놀라운 예외를 빼놓고는, 이러한 비판들의 목표는 항상 이데올로기에 몰든 경제이론을 보다 과학적인 경제이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의 비판은 항상 대문자 S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학'은 이른바 경제의 '최적치

(optimum)'를 좀더 잘 그리고 빨리 정의하기 위해 정치과정을 우회하게 해줄 비상한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나는 정치경제학을 문자 그대로 “정치를 절약하도록(economise politics)” 만들고 사회과학자들이 최적치의 계산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엄청난 부담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즉 정치경제학이란 정치의 경제(절약)인 것이다.

좌파는 심지어 자신을 재발명할 것을 꿈꾸는 순간조차 '생산수단의 전유'라는 목표에 집착해 왔고 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계산(여기서 '계산'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그에 관련된 사람들·생물들·사물들 모두에 미치는 결과들을 따져보는 것을 뜻함—옮긴이)의 집단적 전유라는 훨씬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는 언제나 극단적으로 무관심해 왔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좌파에게 좌파적 경제과학은 우파적 경제과학과 정확히 똑같이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경제과학이란 것이 의미하는 바가 첫째, 사람들이 상품과 엮힐 때 실제로 무얼 어떻게 하는지를 서술하지 않는 '서술적 과학(descriptive Science)'과 둘째, 최적치의 계산에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상담할 비용을 치르지 않는 '처방적 과학(prescriptive Science)'이라는 놀라운 이중적 위업에 성공한 가장 어려운 사회과학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합법적 과학에 필수적인) 서술과 (합법적 윤리에 필수적인) 처방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 낸 학문이라면, 그야말로 조심스러운 비판을 받을 가치가 있다. 전체 집단에 대한 느끼고 고통스러운 계산을 하지 않고, 단지 계산할 때의 단위가 무엇이든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난 최종결산만 읽고 생략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좌파는, 주류경제학을 품에 안거나 '부르주아' 경제학을 대체할 보다 과학적인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을 꿈꾸는 대

신, 이제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비마르크스주의 정당'을 확립할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즉 하나의 '과학'인 경제학이 역사와 사회의 법칙을 밝혀준다는 슬로건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최초의 정당 말이다.

항목 9: 계산 가능성에서 서술 가능성으로

좌파에게 남겨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안 경제학에 기초해서 어떻게 자신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이다. 서술과 처방 혹은 사실과 가치라는 이중적 우회를 위해 구상된 경제학을 '계승'할—그래서 가치의 이름으로 사실을 논하고, 사실의 이름으로 가치를 논할—것인가?

우리는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의 이상으로부터 서술 가능성(descriptibility)이라는 이상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계산은 계산될 영역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제외되는 모든 외부요인(externality)들을 무시함으로써 정치를 절약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자체는 계산될 것(내부요인들)과 계산되지 않을 것(외부요인들)을 분배하는 수많은 강력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양식(mode of calculation) —생산양식이 아닌—으로 서의 자본주의가 지닌 한계는, 그것이 제쳐놓은 것들(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엮힘들, 정당한 과정, 외부요인들)을 계산하는 데 스스로 매우 비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스스로를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 유일한 방식인데, 그래야 엮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빠져나왔어” 혹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필요없는 그 모든 엮힘들을 다룰 필요는 없어”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

기 때문이다. 계산을 제한하는 엄청난 과업—회계와 경제학 자체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이 없다면, 즉 모든 상호작용들을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불가능한 것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전유도, 자본화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좌파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투쟁함에 있어 그게 마치 하나의 생산양식이며 예정된 대안(예컨대 다른 생산체제)을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경제학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정치질서를 안정시키려고 18세기에 발명된 이 이상한 이중적 우회로가 사람과 사물을 함께 묶어주는 것에 관한 최종해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적치 혹은 '좋은 삶'에 대한 탐색—이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낡은 정의이다—은, 경제학을 이용해 서술과 처방을 절약하려는 우파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며, 서술의 임무도 처방의 임무도 회생시키지 않을 새로운 정치과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좌파가 자신의 급진성에 충실하고 계속 존재해야 할 좋은 주제 하나가 있다면, 정치를 조직화할 방식으로서 경제학을 대신할 계승자를 찾기를 고집함으로써 우파와 새로운 차이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 근대화의 으뜸 '과학'인 경제학이 근대화를 계승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으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좌파는 신학에 대해 불가지론을 취하는 덧없는 희망을 추구하는 대신, 마침내 경제학에 대해서 불가지론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사람과 사물을 엮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철저한 미스터리로서, 정치경제학의 정복으로는 이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다.

항목 10: 강한 국가

유럽 곳곳에서 다양한 구좌파의 잔류자들은 시장의 잔인성과 투쟁하기 위해 근대 시기에 고안된 예전의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잔재를 유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구화의 파도에 대항하는 완충물로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이상한 문제를 둘러싸고 구좌파와 신좌파 사이에 새로운 분할이 나타나고 있다. 좌파정당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쟁자인 우파보다도 자신들이 더 빠르게 국가를 해체하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금세기의 다양한 냉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야말로 이상한 상황이다. 새로운 좌파가 발명되는 데 있어 이것은 정치적 논쟁의 희화(戲畵)일 뿐이다. 국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시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정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결정하는 표시가 될 수 없다. 적어도 이것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덕분에 우리가 극복했어야 할 일종의 공허한 질문에 속한다.

시장·연결망·제도는 사람과 사물이 서로 맺는 관계의 유형을 조직화하는 방식들이다. 한 형태의 조직화가 다른 것에 비해 갖는 선형적 특권은 없다. 따라서 좌파는 이 가운데 어떤 형태가 좋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가지론에 서야 하며, 다른 것들을 배제한 채 하나의 형태에 과도하게 천착하는 일은 우파에게 맡겨놓아야 한다. 그 대신 좌파는 특수한 경우들마다 어떤 조직화 양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다른 시금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최적치에 대한 집단적 탐색에서 어떤 조직화 양식이 서술하고

처방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만일 어떤 제도가 열 개의 강력한 계산기에서 천 개의 계산기로 가게 만든다면 그걸 선택하자. 만일 이와 반대로 소수의 시장(市場)이 행정상의 열 개의 강력한 지름길로부터 수백만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다, 좌파는 선택된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으로써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이들 조직화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이 최적치에 대한 계산양식의 집단적 전유를 증대시키는가에 대해 천착해야 한다. 그렇다, 좌파는 "생산력을 해방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생산력은 서술과 계산의 힘들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힘들을 해방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들이 정착되어 어떤 조직화 양식이 나온 것인지 집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국가는 시민사회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최적치에 도달하는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국가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을 그리고 연결망을 대체하려는 부담스러운 임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유방임, 자유통행(laissez-faire, laissez-passer)'은 더 이상 국가의 간섭에 대항하는 시장을 가리키는 슬로건이 아니라, 다른 조직화 양식들의 모든 간섭에 저항하는 국가의 자유를 가리키는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좌파의 새로운 국가는 스스로를 다른 조직이 하지 않을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새로운 국가가 해야 할 임무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연루되어 있는 집단적 실험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사후보고하고 유인하며 조직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에게는, 서술과 계산을 절약함으로써 전체 시민사회를 대신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가공할 임무들에 비해 훨씬 나은 힘의 원천이 되

어줄 것이다. 오직 강한 국가만이, 두 개의 우파, 극좌파, 녹색파 등이 (사물과 사람을 함께 묶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적 '과학'을 가지고 최적치에 대한 집단적 계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오직 강한 국가만이, 내가 앞에서 주장한 집단적 실험이 유산되거나 우회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 분명히 가시화되었어야 할 사항을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앞에서 언급하였다. 한마디로 계급전쟁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좌파와 우파 간에는 사실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켰던 시민사회의 계급냉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파와 다양한 좌파 사이에는 항상 깊은 의견일치가 있어왔다. 근대화의 필요성, 진보의 불가피성, 시간의 화살이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 개인윤리에 관한 해방의 요청, 정당한 과정을 우회시키는 대문자 S '과학'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토대적 역할과, 과거를 비가역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속적 혁명들에 대한 생각에서 그러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우파와 좌파는 이 항목들 각각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차이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제공되고 실험되고 연마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 간단한 글에서 나는 좌파와 우파 간의 새로운 — 단순히 누가 더 근대화를 근대화하는가를 겨룬다거나 복지 국가를 더 빠르게 해체할 더 젊은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 구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몇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대중적 호소력은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이제 세계에는 근대화와는 다른 무엇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럽에게 그리고 좌파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재확립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의 화살은 아직 존재하고 방출될 에너지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혁명이 아닌 공존으로 이끄는 것이다. 해방은 개인생활에 있어서조차 더 이상 오늘날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정당한 정치과정을 절약할 방법이 없다. 특히 대문자 S '과학'은, 특히 사회과학은, 특히 경제학은 그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나 자신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다. 나는 어느 정도도 대표하지 않으며 이 열 개 항목의 강령을 제시하는 데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사회과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과거에 사회과학은 항상 정치적 기획과 결부되어 왔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부가 생산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이라는 표현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있다. 다름아니라 '과학'이라는 단어와 '사회'라는 단어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세 차례 혁명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신생 과학들(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통해 "이미 하나의 조직화된 전체(Whole)로서의 전체 사회(Society)"를 표상하는 임무를 자신들에게 부과해 왔다. 이것이 사회과학자들에게 사람들을 대신해 발언할 권위를 부여해 왔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른 채 사회과학자들만이 탐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조작되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바우만(Zygmunt Bauman, 영국의 사회학자—윌킨이)이 주장하듯이, 사회과학자들은 스스로 입법자로 행세하는 임무를 자신들에게 부과하였다.

나는 사회과학자의 임무가 사람들 행위의 숨겨진 토대로 작동하는, 이미 존재하는 '전체'를 발명해 냄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해 발언하는 데 있다고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사회과학자로서의 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믿는다. 만일 과학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실험된다면, 사회과학과 정치의 새로운(생산적인)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것이 내가 앞에서 말한 '집단적 실험'이다.

어느 과학도 혹은 사람과 사물을 함께 묶는 그 어떤 집단적 생산도 대문자 S '과학'이나 대문자 S '사회'에 의해 절약될 수는 없다. 사회과학 대신 '정치적 연구(political research)'와 같은 것이, 또는 스텐저스(Isabelle Stengers, 벨기에의 과학철학자로서 프리고진의 카오스 이론을 널리 알림—윌킨이)가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라고 부른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과학과 정치의 올바른 혼합을 발명하기 전에 나의 슬로건은 오직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절약주의자를 절약해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